

이공계 기피 현상과 그리스도인

한윤식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IMF 위기를 극복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이공계 기피 및 이탈 현상은 이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였으며, 이 같은 이공계의 위기가 계속될 경우 한국의 국가경쟁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공계 인력의 상대적인 신분 불안, 경력을 쌓아가는 동안 불리한 사회적 지위 상승, 제조업이 우리 산업의 중추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집단의 CEO는 대부분 상경계 및 법학계가 차지하고 이공계는 소수에 불과하고 4급 이상의 공무원 중 11.4%만이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 또한 이공계 출신의 초임도 인문사회계 출신에 비하여 적을 뿐만 아니라 경력을 쌓아도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즉 이공계 인력이 인문사회계 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공계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들은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산업화에 필요한 이공계 인력을 지난 30년 이상 지나치게 많이 배출함으로써 인력시장이 왜곡되었으며, 또한 이렇게 대량으로 배출되는 이공계 인력이 최근의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고교부터의 문과-이과 구분으로 인하여 이공계 학생은 인문사회계 소양을 경시하는 풍조를 갖게 하여 마치 기능인과 같은 인력을 배출해 온 것이 그 근본적인 이유로 추정된다.

따라서 가장 우선하여야 할 대책은 이공계 대학 인원을 대폭 축소하여 학생대 교수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임과 동시에 졸업생들이 급변하는 기술환경과 사회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고급의 이공계 인력으로 양성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고급의 이공계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공계 교육에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함으로써 지금의 악순환구조를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우선 과학기술은 문화명령 수행의 중요 방편으로서 이웃을 섬기는 일이며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부요함을 드러내는 귀중한 일임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야에 소질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성실히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에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인이 사회에서 받는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로 인하여 이를 기피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에 대한 불신이며 이는 세상 풍속을 좇는 것으로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다. 반면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국가와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면 이공계로 소질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기피하는 그곳은, 경제주의와 기술주의로 점철된 그곳은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기회의 소명소가 될 수 있다.

전인적인 이공인이 되기 위하여 전공분야의 전문성을 추구하되 급변하는 과학기술 동향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초능력을 키워야 한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회에 대한 이해가 풍성하여야 하며, 의사소통 능력과 국제화 사회에 부응하는 능력과 조직 속에서 일을 해 낼 수 있는 리더십과 팀웍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인적인 과학기술인으로 스스로를 계발하여 나갈 때에 과학기술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주가 되게 하시는 성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